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강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의 꿈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내 이름을 딴 토크쇼, 청춘들의 가슴 두드릴 것”

그들의 유쾌한 상상

문화판을 바꾸다

(7)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

토크콘서트 'SOON SHOW' 진행

다음쇼는 11일 시청자미디어센터

'그들이 사는 이야기' 등 기획

"자신만의 스토리 만들어라"

“청춘사업”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서는 청춘사업을 ‘연애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문화를 더해 ‘청춘문화사업’을 만들면 어떨까. 문화를 통해 청춘들의 꿈을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3월 광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지원센터에 문을 연 청춘문화기업 스토리박스(STORY BOX)는 그런 곳이다. 말 그대로 청춘들의 인생에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강연 전문 문화기업이다. 강연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가치, 지혜, 경험을 전해주는 일을 한다. 말이 기업이지 직원은 강수훈(32) 대표 단 한 명이다.

“초짜 문화자” 강 대표는 법관을 꿈꾸던 법대생이었다. 그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오직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달려왔다. 다른 청춘들처럼 공기업과 대기업, 공무원을 꿈꾸기도 했다. 대학생활의 낭만보다는 오직 스펙 쌓는데 몰두했던 청춘을 보낸 사람이기도 하다.

“따스한 봄날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문득 ‘내가 지금까지 뭐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생활을 되돌아보니 추억이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것이 강연이었죠. 대학생활 동안 가장 즐거웠던 것이 강연을 듣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좋아했던 강연을 ‘직접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강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이름을 내건 토크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지역의 인디뮤지션들과 공연을 만들고 싶어 기획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진행된 ‘강수훈의 SOON SHOW’는 유료에도 불구하고 매진을 기록하며 순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다. 주위에서는 “네가 뭘대 이름을 걸고 유료 공연을 만드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 ‘SOON SHOW’라는 이름도 ‘곧 또 만나자’, 즉 토크 콘서트가 2회, 3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

“내가 와서 공연 한번 해보자라며 재능기부를 강조하는 지역 문화계 현실이 싫었어요. 예술가들이 ‘일 플러스 원’도 아니잖아. 평생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평생 악기를 연주해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 뮤지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어요. 벌써 다음 쇼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음 쇼는 오는 11일 오후 7시40분부터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광주재능기부센터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1만5000원이다.

“그들이 사는 이야기”(그사이)는 강 대표가 가장 먼저 기획한 시리즈 강연이다. 남광주역 푸른길 기차에서 진행되는 그사이 는 단순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사들의 성공담을 들려주는 강연이 아니다. 강연자로는 26초마다 옷을 한 벌씩 파는 인터넷 쇼핑몰 바가지머리 손석호 대표, 커피북는집 이영숙 대표, 넥스트컴퍼니스 안창주 대표(전 삼보컴퓨터 사장), 고도소프트 전수용 대표 등을 초대했다.

“누구나 자신만의 가치있는 스토리와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야기, 자신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연자들에게 항상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나 이거 하려고 얼마를 빚었나’ 등 솔직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강연자 중에는 ‘도와 달라’고 말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웃음)”

이 밖에도 야구 해설자 하일성씨, 그루폰 최연소 본부장을 지낸 강남구 대표, 핸드스튜디오 안준희 대표 등을 초대해 대형 강연을 기획하기도 했고, 지난 2월 열린 ‘김제동 토크콘서트’ 등 수많은 공연, 강연에 협연 업체로 참여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최근에는 지역 문화단체들과 손잡고 조선대 후문 도내기 시장 옆에 복합문화공간 ‘청춘 아고라’를 만들었다. 마 을공동체지원센터, 공연기획 전문 에스홀리데이, 조선대 공공 디자인그룹 점선면이 함께하고 있다. 젊은이들과 지역 어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그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스토리 박스의 강연 정보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http://www.storyboxes.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 봄 사로잡는 ‘브람스 소나타’

선수정 피아노 독주회, 7일 금호아트홀



브람스



선수정

당대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던 작곡가 브람스는 모두 3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남겼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작곡가 슈만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내이자 피아니스트인 클라라를 향한 그의 사랑은 늘상 마음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첫번째 소나타인 ‘피아노 소나타 2번’을 작곡한 지 30년만에 클라라에게 헌정했다.

피아니스트 선수정씨가 브람스 소나타 전곡 연주회를 갖는다.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9일 오후 7시30분 서울 금호아트홀.

‘소나타 1번’은 브람스 특유의 서정성이 담긴 곡이다. 작곡가 스스로 ‘회고’라는 부제를 덧붙인 ‘소나타 3번’은 폭넓은 음악 사용으로 마치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광주예고를 수석 입학·졸업한 선씨는 서

울대 재학중 미국으로 유학, 미시간 주립 대학교 피바디 음악원에서 문용희 교수를 사사했다. 이후 제네바 국립음악원에서 도미니크 베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최우수 졸업으로 최고연주자 과정 등을 마쳤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2011년 예술의 전당 아티스트에 선정돼 독주회를 열었다. 현재 서울대, 경희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인문학 강좌... 매월 셋째주 화요일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이 ‘여성주의와 인문학의 조우’ 2014년 강좌를 시작한다.

지난해 ‘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던 재단이 올해 주목하는 건 ‘가족’이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불안,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가족의 미래 환경을 전망해 보는 자리다. 강의는 매주 셋째 주 화요일 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열린다.

1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실장의 ‘가족 변화의 흐름과 특성’을 시작으로

11월 25일까지 모두 9차례 강의가 열린다.

강의 내용은 ▲가족은 낭만이 아니라 다큐다(이정화 전남대 교수) ▲세상에서 가장 큰 1% 가족(정선주 심리상담소장) ▲당신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옥경희 광주대 교수) ▲가족의 현재와 여성:우리 엄마는 왜?(김고연주 중앙대 전임연구원) ▲애정과 투쟁의 장소로서의 가족(안이환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등이다.

무료로 진행되며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670-0542~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빛고을 국악전수관 수강생 모집... 31일까지 접수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제47기 국악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민요, 판소리,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 장고, 고법, 해금 등 8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강사는 주수연, 김선이, 이정숙, 하선영, 양신숙, 이명식, 정하린, 장용수씨다.

신청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과정별로 20여명을 모집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 원이며 70세 이상은 3만 원이다.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3층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 각 역에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3월 21일(금) 21시 출발 정동진 · 낙산사 · 휴휴암 무박2일 기차여행

날짜	시간	일정	날짜	시간	일정
3/21(금)	21:00	목포역/나주역/광주송정역/정동진 정읍역/낙산의 출발	3/22(토)	10:30	휴휴암 도착 후 관광
				11:30	주문원 어시장 도착 후 자유중식
3/22(토)	05:00	정동진 도착 후 일출, 자유관광		14:30	동해역 도착 후 출발
				22:30	목포역/나주역/광주송정역/정동진/낙산의 도착

1인 요금 성인 89,000원~ 경로(65세 이상) 86,000원~ 소아(만12세 미만) 76,000원~

광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7기), 2008년(27기), 2010년(37기), 2012년(47기), 2014년(57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동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